해외 동정

저방사능 폐기물 안전규제에 대한 연구

미국 국립아카데미 방사성폐기물관리분과회는 1년 내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속하지만 매우 낮은 방사능을 띄는 저방사능(low-activity) 폐기물의 규제와 관리에 관한 권고안 보고서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 분과회는 지난해 이 사안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는데,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을 발간하여 실제 방사선 재해와 현행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관행간의 차이와 비일관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개선분야를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열어 여러 관련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공병대, 캘리포니아환경보호청, 국방부, 에너지부, 환경보호청, 정부회계국, 응용에너지연구소, 원자력규제위원회, 남동폐기물콤팩트위원회 등이었다.

저방사능 폐기물에 속하는 물질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지난 60년 간 이들에 대한 규제는 임기응변적으로 수행되어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보다 위험하지 않지만, 자연방사선 수준보다는 높은 방사선 피폭을 유발한다. 만약 이들 폐기물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최종보고서는 10개월 내로 발행될 예정이며,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옵션을 평가하게 된다. 여기에는 위험도정보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대중 신뢰와 위험 인식의 이슈들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은 저방사능 폐기물 규제체계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표출해 왔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일관성도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국립아카데미 방사성폐기물관리분과는 국립아카데미의 국가연구심의회 소속이며, 4개의 지부로 구성된 사설, 비영리, 의회 인가를 받은 과학기술 연구단체이다.

출처 : http://member.nei.org/documents/overview/html/NEIC1220041019...